

2016 년 가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
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

메시지 3

교회의 하락
(2)

적그리스도의 원칙과,
가인의 길과, 발람의 그릇된 길과, 고라의 반역적인 길과,
진리와 의의 길인 바른 길

성경: 요일 2:18, 22, 4:3, 요이 7, 유 11, 벵후 2:2, 15, 21, 행 9:2

- I. 요한 일서 2 장 18 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한다.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은 원칙, 즉 적그리스도의 원칙이 있음을 가리킨다.**
- A. 요한 일서 2 장 22 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.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임을 본다.
- 어떤 사람을 원칙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존재의 어떤 방면을 부인하는 것이다.
 -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(사 9:6), 혹은 그분께서 생명주시는 영(고전 15:45 하)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이러한 방면들을 반대하는 것이다. 것처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.
- B. 헬라이어 접두사 안티(anti)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—요일 4:3, 요이 7.
- 첫째, 그것은 ‘거스르는’을 의미한다. 둘째, 그것은 ‘대치하는’ 혹은 ‘대체하는’을 의미한다.
 - 적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르고,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것 즉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어떤 것을 갖는 것이다.
 - 적그리스도의 원칙은 우선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무언가를 부인한 후,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다.
- II. 유다서 11 절은 가인의 길과 발람의 그릇된 길과 고라의 반역적인 길에 대해 말한다.**
- A. 가인의 길은 자신의 뜻을 따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. 이러한 이단적인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정하신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거절하고,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시기하는데,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증거를 지녔기 때문이다—창 4:2-8.
- 가인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침으로써 적용되는 예기된 구속(창 3:21, 히 9:22)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여 거둔 산물을 주제님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사람의 타락 안에 계속 머물렀다.

2. 가인이 하나님께 경배한 방식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념과 의견에 따라 종교를 만들어 낸 것이었는데, 그것은 사탄에게 부추김을 당한 것이었다.
 3. 역대로 가인을 따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,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었다.
- B. 발람은 거짓 신언자가 아닌 참된 이방인 신언자였다. 그러나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했다. 이것이 발람의 길이다—벧후 2:15, 민 22:5, 7, 느 13:2, 계 2:14.
1. 발람의 그릇된 길은 그릇된 교리가 진리와 반대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, 대가를 위하여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.
 2. 이 잘못된 길은 어떤 은사의 영향력을 남용함으로써,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그들이 주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데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—민 22:7, 21, 31:16, 계 2:14.
 3. 대가를 탐내는 것은 탐내는 이들로 하여금 발람의 잘못된 길 안으로 무모하게 돌진하게 한다—유 11.
- C. 유다서 11 절은 또한 고라의 반역적인 길에 따라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.
1. 유다서 11 절에서 ‘반역적인’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‘반대하는’ 곧 ‘거슬러 말하는’을 의미한다.
 2.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대표 권위를 거스르는 반역이고, 또 (모세와 같은) 그분의 대표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반역이다. 이러한 반역의 결과는 멸망하는 것이다—민 16:1-40.
 3. 하나님은 항상 대표 권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. 이 권위와 말씀에 반역하는 것은 원칙에 있어서 고라의 반역 안에 있는 것이다.

III.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, 곧 진리와 의의 길을 취해야 한다—벧후 2:2, 15, 21.

- A.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구부러짐이나 치우침이 없이, 곧 불의가 없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—15 절.
- B. 바른 길은 진리의 길이다—2 절.
1. 진리의 길은 신약의 내용의 실재, 곧 진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정이다—딤후 2:4, 3:15.
 2.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다른 명칭들로 불린다. 평안의 길(눅 1:79, 롬 3:17), 구원의 길(행 16:17), 하나님의 길(마 22:16, 행 18:26), 주님의 길(요 1:23, 행 18:25).
- C. 바른 길은 의의 길이다—벧후 2:21.
1.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일들과 문제들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다—마 5:20.
 2. 의는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 표현이다—고후 3:8-9.
- D. 바른 길은 ‘그 길(the Way)’이다—행 9:2, 19:9, 23, 22:4, 24:22.
1. 그 길(the Way)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나타낸다.
 2.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길이다. 또한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고,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누려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과 하나 됨으로 박해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,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건축되어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는 길이다.